

# 송아지 육성률을 높이자

이찬희/ 43지역 VC

드디어 2010년이 시작 되었다. 작년 한/육우 거래가격의 상승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향후 생물에 대한 산지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격의 등락을 경제성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시장 변화에 대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초석으로 송아지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농가의 시설적인 문제, 인력의 부재, 사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으로 농가들마다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주의 사육의지' 라고 생각된다.

소는 송아지 시기의 관리 수준에 따라 출하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육기간이 다른 산업동물(돼지, 닭)에 비해 아주

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송아지 시기의 관리는 이후 육성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자는 효과적인 송아지 관리 방안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 암소 관리

송아지가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미소로부터 강건한 송아지가 생산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3산 이상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폐사율도 낮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경제성 있는 암소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연간 20%의 번식용 암소를 갱신할 수 있는 사양체계를 유지하고 미경산우와 번식 적령기의 육성우는 전체 번식용 암소 사육규모의 25%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 초유 섭취 전 어미 소 유두 세척 및 소독

갓 태어난 송아지의 초유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미 소 유두 세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

지만 송아지의 출생 이후 질병 발생과 연관 지어 볼 때 어미소의 유두 세척은 초유의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위는 거의 무균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이 용이하며, 초유 섭취 전 어미 소의 유두 세척 및 소독 실시 여부에 따라 설사 발생률이 많게는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갓 태어난 송아지를 위한 어미소의 유두 세척 및 소독은 설사예방의 첫 걸음이다.

## 분만 후 송아지 건조 및 보온

분만 경험이 없는 초산우의 경우에는 약 30% 정도가 분만 이후에 송아지를 돌보지 않는데, 초유 포유와 피부 건조가 지연되면 체온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미 소가 송아지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축주가 직접 신생송아지의 피부를 수건 등으로 닦아주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유지시켜 송아지의 포유능력을 향상시키고 설사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우는 외국의 비육우 품종에 비해 소형 품종으로 신생 송아지의 복부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지방세포를 외국 종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게 가지고 태어난다. 이로 인해 온도 충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겨울철 낮은 온도에 설사발생빈도가 높음으로 축사에 보온등과 같은 보온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송아지 뱃줄 관리

신생송아지의 뱃줄은 분만 전에는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며, 분만 후에는 송아지의 간을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대에 염증이 발생하면 복막염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간염이 발생하면 면역력을 저하시켜 설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뱃줄을 절단한 이후에는 강옥도나 베타딘 등으로 반드시 소독을 해주어야 한다.

## 설사의 처치

생후 10일령 전후로 수양성 설사를 한다면 바이트릴을 추천한다. 대장균의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이다. 바이트릴은 내독소의 방출없이 원인체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용하므로 치료 후 회복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치료 후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것은 송아지의 일

당 증체량과도 연관성이 있고, 2차적인 복합감염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의미가 있다. 어린 일령에서 설사를 했던 개체가 이후 설사 재발률이 높고 호흡기 발생률 또한 높아 지는 것은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러한 연쇄적인 현상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적절한 치료 시기에 효과적인 약제의 선택이 중요하다. 때문에 바이트릴 사용농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정맥주사도 가능하므로 탈수 교정시 수액요법 적용에도 효과적이다.

실례로 축우 120두 사육농가에 10일령에 흰색/노란색의 수양성 설사를 심하게 하는 개체수가 20%가량 되어 가검물의 의뢰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이 농가는 이 후에도 축사의 오염과 환축의 분변을 통한 상호 전파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설사가 발병하였다. 필자는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설사를 하는 환축을 별도의 공간에 격리 수용하고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 바이트릴과 카토살을 주사하였으며 탈수가 심한 개체에게는 수액 요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치료 2일째부터 증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으며 증상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치료 개시 후 2~4일에 정상 회복되었다.

〈그림 1〉 설사로 인해 탈수와 의기소침



〈그림 2〉 콕시듐으로 인한 혈변



## 송아지에 신선한 물 공급

포유중인 송아지는 젖을 먹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송아지의 음수 공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반추위 미생물인 박테리아는 액상의 혐기적 환경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송아지는

반추위 미생물의 정착이 지연되며 결과적으로 반추위 발달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후 일당 증체량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포유중인 송아지일지라도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보다 건강하게 송아지를 키울 수가 있다.

## 콕시듐 발병 관리

콕시듐은 내부 기생충의 일종으로 송아지의 설사를 유발하며 기생충이기 때문에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콕시듐에 감염된 송아지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세균 혹은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원인체들과 복합 감염될 경우에는 혈변을 보이게 된다. 농장에서 1~2개월 사이에 혈변을 보이는 개체가 발생하면 축주는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된다. 감별진단 해야 할 것들도 생기고 육안적으로도 혈변을 농장에 뿌리고 다니면 당장 송아지가 어떻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들은 과한 것이 아니라 생각되며, 농장에서 혈변을 나타내는 송아지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치료 시기가 조금만 늦게 되면 이는 송아지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콕시듐은 치료가 된 이후에도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효과적인 약품을 선택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못 할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한 예로 바이콕스5%를 투여한 개체와 비투여 개체간에는 1년에22~27kg의 성장차이를 보인다.

콕시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장에서는 3~4주령에 바이콕스 5%를 3mL/10kg 경구 투여 함으로써 치료 및 예방을 할 수 있으니 농장에서 바이콕스의 투약을 프로그램화하여 사용한다면 이후 콕시듐으로 인해 골머리 아픈 일은 없어질 것이다.

앞서 설명한 7가지의 사항들은 간단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매번 실천하기에는 귀찮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장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들은 송아지가 아프고 성장이 저해되어 속앓이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아지 시기의 관리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생 후부터 출하까지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송아지의 육성률을 높여 건강한 소를 만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길은 “사소

한 것들부터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쪼록 2010년 한 해는 양축가 여러분들 모두가 돈을 버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